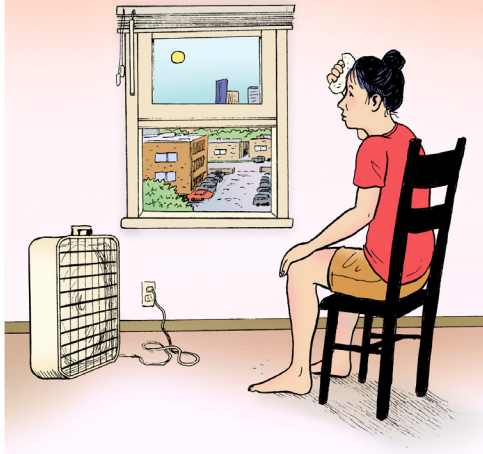


더위를 이겨낸다는 것:

가정 폭력 생존자의 이야기



저는 폭염이 올 때마다 너무 불안해요. 몇 년 전의 학대를 받았던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..



날씨가 더워지면 남편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냈었습니다.



내가 모든 걸 제대로 해 놓으면 괜찮을지도 몰라. 가게에 갈 수 있다면 남편이 좋아하는 치즈버거를 만들 수 있을 꺼야.





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신 생존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생존자분은 Meredith Li-Vollmer와 함께 이 그래픽 이야기를 공동 집필했으며, David Lasky는 그림을 담당했습니다. 이 프로젝트는 Climate & Health Equity Initiative(기후 및 건강 형평성 이니셔티브)의 프로젝트입니다.

워싱턴주 킹카운티에서 본인이 도움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을 알고 계신다면:

New Beginnings(새로운 시작) 헬프라인, 언제든지 이용 가능: 206-737-0242

API Chaya, 모든 언어로 헬프라인 통화 가능: 1-877-922-4292

Refugee Women's Alliance(ReWA) (난민 여성 연합) 여러 언어로 도움 제공: 206-721-0243, 야간 위기 헬프라인: 1 (888) 847-7205

킹카운티 외 지역:
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 (전국 가정 폭력 핫라인), 영어 및 스페인어, 언제든지 이용 가능: 1-800-799-SAFE (7233)